

# 4월 보궐 선거와 한국정치의 미래

---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1) 4월 보궐 선거의 의미:

(2)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 35%- 부정 50%'의 법

칙  
(3) 국정운영 방향 공감도에 대한 견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4) 야권 후보 단일화

## 2, 선거 변수

(1) 투표율

(2) tv 토론과 후보 검증

(3) 윤석열 전 총장 메시지

## 3. 4월 보궐 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 (1) 4월 보궐 선거의 의미: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그의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짜인 틀을 제시해 대중의 사고 틀을 먼저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이 제시된 틀을 반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해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국갤럽의 3월 4주(22일-23일) 조사 결과,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7%로 나타났다.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

## (2)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 35%- 부정 50%'의 법칙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특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견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3월 4주(23~25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리얼미터. ytn 조사(3월 22-26일)에서는 긍정 평가는 34.4%로 비슷했지만 부정 평가(62.4%)는 60%를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중 가장 큰 특이점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계층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60%대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는 26%로 대구경북(24%)과 비슷했고, 부정평가는 65%였다.

스윙 보터라 불리는 중도층에선 긍정 27% 부정 65%였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그 비율이 20% 대 64%였다.

한때 문 대통령의 든든한 우호 세력이었던 20대(긍정 30% 부정 58%)와 30대(긍정 38% 부정 58%)가 등을 돌렸다.

YTN. 리얼미터 조사에선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도층(71.2%)과 무당층(71.2%)에선 부정 평가가 70%대를 넘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조차 부정(51.5%)이 긍정(47.2%)을 앞섰다.

문 대통령 지지도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검찰 장악 논란과 코드 인사 밀어붙이기,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몰아내기로 작년 10월부터 부정 평가가 50%선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LH 사태와 윤석열 전 총장 사퇴, 백신 접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긍정 평가 35%선이 무너졌다.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한국갤럽(3월 23-25일)		YTN리얼미터(22-26일)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4	59	34.4	62.5
서울	26	65	29.3	67.7
중도	27	65	26.4	70.4
무당층	20	64	19.2	71.2
40대	49	48	47.2	51.5
화이트칼라층	43	53	44.2	54.1
20대	30	53	30.2	64.1
30대	38	58	41.3	56.0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3)

대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감소

(시례수: 1,000명, 단위: %)



질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

## (4) 야권 후보 단일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월 23일 발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를 꺾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을 펼쳤으나,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차 범위 밖' 극적 승리를 일궈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3월 24일)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 포인트 가까이 앞선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 후보 57.9%, 박 후보 36.4%의 지지율을 보였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소스. 한국경제신문 조사(3월 26~27일) 오 후보가 50.5%의 지지율을 얻어 박영선 민주당 후보(34.8%)를 15.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명분(정권심판), 이질적 결합(중도+보수), 공동 시정 운영, 단일화 경선 패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 등 4대 요소로 인해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최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으로 야권 단일화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선거 변수

### (1) 투표율

선거 시기	선거 지역	범여권 후보	범야권 후보	투표율
	부산시장	오거돈(우리당)	허남식(한나라당)	33.0%
2004년 6월 5일 노무현 정부 (집권 1년 4개월)	전남 도지사	민화식(우리당) (35.0%)	박준영(새천년민주당) (57.6%)	36.3%
	경남 도지사	장인태(우리당) (27.5%)	김태호(한나라당) (61.6%)	32.8%
	제주 도지사	진철훈(우리당) (44.0%)	김태환(한나라당) (56.0%)	49.8%
2011년 4월 27일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2개월)	강원 도지사	엄기영(한나라당) (46.6%)	최문순(민주당) (51.1%)	47.5%
2011년 10월 26일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8개월)	서울 시장	나경원(새누리당) (46.2%)	박원순(무소속) (53.4%)	48.6%
2012년 4월 11일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2개월)	세종 시장	최민호(새누리당) (29.1%)	유한석(자선당) (41.7%)/ 이춘희(민주당) (37.3%)	59.1%
2012년 12월 19일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10개월)	경남 도지사	홍준표(새누리당) (62.9%)	권영길(무소속) (37.1%)	76.8%



사전 투표제도와 2022년 대선 전초전이란 요인으로 투표율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KBS, MBC, SBS의 4월 재보궐 선거 1차 조사(3월20-21일) 결과, 32.3%가 사전투표, 56.3%가 4월 7일 선거당일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연령별 사전 투표율을 보면 18-29세 31.6%, 30대 40.4%, 40대 38.0%, 50대 33.6%, 60대이상 22.9%로 나타났다.

현 정부 우호 세력이었던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하지만 조직력이 강한 여권의 힘도 무시못할 변수다.

## 2. 선거 변수

### (2) tv 토론과 후보 검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TV 토론 시청률이 심야 편성에도 서울 지역에서 7%를 넘기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여당이 제기하는 거짓말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흑색선전 주장 중 유권자가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조할지가 관건이다.

오 후보는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캠프, KBS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 세 가지"라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샀나' '서울시장 시절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당시 시가보다 더 받았나'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측량으로 물고 늘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내곡동 땅의 핵심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측량하는 곳에 갔느냐 안 갔느냐다"라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2. 선거 변수

### (3) 윤석열 전 총장 메시지

3월 4일 총장 사퇴이후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가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2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 3. 4월 보궐 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미래

4월 보궐 선거 이후 여야 모두 재편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다.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 *Q1.*

**첫째,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세가 유지될 것인가?**

윤 총장 지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상징성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단지 ‘반문 정서’에 편승한 반쪽효과라 곧 추락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Q2.

둘째, 대권에 완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윤 전 총장은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총장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윤 전 총장은 대권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회창 전 총리와 유사한 길을 걸을 지도 모른다. 무서운 집념으로 무장한 '진검승부 정치'로 절대 권력인 대통령과 맞장을 뜨면서 '소신과 원칙'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Q3.

셋째, 향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등 기존 정당과 손을 잡을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조직할지 여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2년 5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4일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대통령실 부실장을 재직하면서 사회당 정부의 중도 우파적 정책들을 펼쳤다. 2016년 4월 중도 성향의 정당인 앙 마르슈!(En Marche!, 프랑스어로 "전진!"이라는 뜻)를 창당하고,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해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마크롱의 정치 성향은 '제3지대'로 요약된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전 국민을 위한 기회 진작과 같은 좌파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친기업적 성향이 돋보이는 우파 정책을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는 중도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민생이 파괴되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데 야권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 4월 보궐 선거와 한국정치의 미래

---

## Q & A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